

문화특가

부안군 위도면 신청사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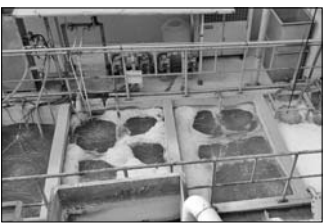
부안군 위도면사무소 신청사 준공식이 6일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기관 단체장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위도면 신청사는 위도면 진리 안길 5 일원에 총 4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57.66㎡에 지상 2층 건물 3동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숙소, 중대반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사 형태로 현대식 건물이다.

이날 준공식은 청사 신축 관련 감사패 증정과 현판식, 위도상징 조형물 이동, 제막식, 위도면민 화합 큰잔치 등으로 진행됐다.

신경철 위도 면장은 "1300여 위도 주민이 기원하던 면사무소 신축 청사 준공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고송도치 섬 위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환경오염사고 예방점검

정읍시가 6일부터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15일까지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지도와 더불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퇴비화시설,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한 시는 폐기물 불법매립·투기행위와 허가받은 품목 외 처리현황, 생활환경을 초래하는 축산시설과 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또 단속을 통한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거나 엄중 경고하고 고의·상습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위반업소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각종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상동 지구대, 수확여행

관광버스 사고예방 교육

수확여행과 단풍놀이 등 가을철 나들이 차량 증가로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는 최근 정읍 전북과학대학교와 정읍중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떠나는 관광버스 10대를 대상으로 음주추진과 졸음운전 예방 교육을 벌였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모 지역에서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덜 갚 상태에서 학생수송 관광버스를 운전하려한 버스 운전자(67)가 경찰의 사전 음주검지에 적발돼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로 대체된 사례도 있어 상동 지구대는 관광버스 운전자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과 함께 졸음운전 안 하기, 차내 음주가 무 금지, 대열운행 안 하기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2회 전국생태관광페스티벌이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네이처센터 일원)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정읍 내장산 생태관광 페스티벌

환경부 주최 내장호 자연해설탐방 생태관광 컨설팅 등 이어져

제2회 전국생태관광페스티벌이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네이처센터 일원)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북한산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생태관광협회와 전북도, 정읍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행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 생태관광 운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존 관광과는 다른 생태관광의 특성을 널리 알려 관광의 패러다임을 점진적으로 변화·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주관 측은 미래를 위한 약속, 생태관광! 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생태관광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내장산 단풍뿐 아니라 내장호 주변의 여러 생태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태관광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첫 날인 15일에는 초등학교 200여 명이 참가하는 '사생대회'와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열린다.

또 서울대학교 생태관광 연구센터가 진행하는 '생태관광 여행컨설팅'과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가 안내하는 '내장호 자연해설 탐방'도 선보인다.

내장호 탐방은 1회 20여 명으로 한정된 120분짜리 탐방 프로그램이다. 15일부터 이틀간 총 5회

가 열리며,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처센터에서는 '이누크와 소년', '함께 산다는 것' 등 환경영화 6편이 상영되며, '윤형민-정경미 부부의 함께하는 토크쇼', '스텝 투어' 등 다채로운 현장 행사도 열린다.

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장에 정읍홍보부스 설치하는 물론 특산품도 판매하고 생태체험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인정 넘치는 정읍 이미지를 높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백구 지지제 활용 방안' 열린 정책토론회

이승복 부시장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으로 다양한 방안 모색

김제시는 6일 시청 2층 재난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제로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부서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3.0 열린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국유지로 관리된 백구 지지제(폐저수지 107천㎡)를 2013년 시에서 매입했으나 아직까지 미 활용되고 있어 자칫 환경오염 부지로서 전락될 것을 우려해 방안 찾기에 나섰다. 토론회 시간 내내 격의 없는 논의로 다양한 견해들이 모아졌다.

토론회 앞서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부지현황은 물론 주변 접근성 등 지적적 여건에 대해서도 살폈으며 특히 사전에 토론주제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활용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무부서와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오늘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향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리"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농어촌공 부안지사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가 6일 부안군 계화면 의복 1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김모 씨(80, 여) 가구를 방문하여 농어촌 집을 고쳐주었다. 이날 부안지사는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도배는 물론 장판 교체 및 싱크대, 화장실 보

수와 유실수 전지작업을 매년 독거노인 가구 등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병수 지사장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더욱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눔경영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사토로 부지 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해답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승복 부시장은 "대규모 부지이며 지역주민과 주변여건 등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활용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무부서와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오늘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향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리"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변산면 기관 단체 마실길

3코스 정화 활동 실시

부안군 변산면 4개 기관과 변산지킴이회들이 6일 마실길 3코스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마실길 환경정화 활동은 태풍 차바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해안가로 집중 유입되어 변산면 등 국립공원과 8098부대, 육군경비정, 변산지킴이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마실길 구간 해안에 산적한 쓰레기와 해안 구곡에 수년간 누적되고 방치된 해수쓰레기 30여 톤을 수거 처리하였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변산을 찾고 있어 클린 변산을 가꾸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취지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김제시는 6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계승하기 위해 김제실내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지회장 이종선) 주관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어르신 1,000여명과 이견식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전통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며,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 15명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4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격려했다.

한 자리에 모이신 어르신들께서는 따뜻한 점심과 함께 위안공연 등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마음은 청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건강한 행사가 되었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그동안 국가의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이롭다운 발자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령화 시대 노인인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으로 활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지평선배 줄다리기 대회 우승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준우승... 3년 연속 연승 기록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이 제18회 지평선배제기대회 제1회 지평선배 음·면·동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에 참석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줄다리기 대회는 각 읍·면·동별로 남자부 10명, 여자부 10명이 출전하여 치열한 경기를 벌였고 성덕면은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준우승을 하며 3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성덕면 남자부 선수들은 신동동, 광환면, 부랑면을 차례대로 꺾고 금산면과의 결승전에서도 패전 없이 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반면 작년 여자부에서 우승했던 성덕면 여자부 선수들은 용지면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고전

한 끝에 결승에 진출했고 힘이 빠진 선수들은 부랑면과의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성덕면 출전선수인 박근성씨는 "2년동안 간직했던 종합우승 깃발을 다시 지키게 되어서 기쁘고, 성덕면의 단합력과 우승을 향한 열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경기 내내 선수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열심히 힘을 모았던 성덕면 선수들에게 화합의 결과가 있어서 기쁨이 더 크다. 선수들의 노력으로 다시 손에 쥔 종합우승 깃발을 필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건강 행복플러스 운동교실' 운영 호응

정읍시보건소, 30세 이상 대상

정읍시보건소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낙상 예방을 위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은 청장년과 어르신들이 탄력밴드와 볼, 덤벨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유연성을 기르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실천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연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

요일 주 2회 10주 간 운영된다.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일반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주2회에 걸쳐 10주 간 운영하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근육량, 악력, 유연성 측정 등 사전 건강행태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보건소는 "이번 운동교실을 통해 청장년과 노년기 시민들에게 운동실천과 영양·금연·절주 등과 관련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63.539-6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